

『2021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평균 3.5일
- 부산지역 47.7%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 51.2%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8월초 (61.9%)
- 60.5% 기업,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인식
- 경기 회복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상 (42.2%)

■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평균 3.5일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5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을 3.7일, 중소기업이 3.4일로 조사되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3.6일, 비제조업 3.3일로 조사되었다.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3일'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0.0%로 가장 많았고, '5일' 30.0%, '2일 이하' 17.5%, '4일' 12.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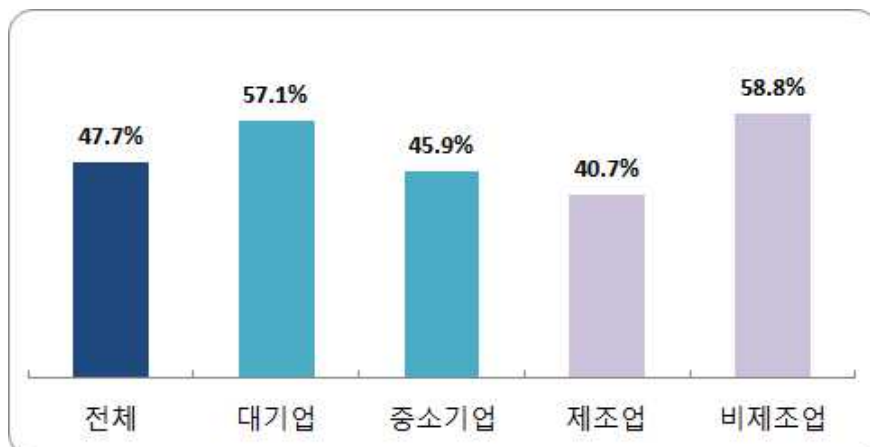
■ 부산지역 47.7%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하계휴가 실시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47.7%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을 57.1%, 중소기업 45.9%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응답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40.7%, 비제조업 58.8%로 조사되었다.

하계휴가비 지급 형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52.4%,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 지급' 기업이 38.1%, 기타 4.8%로 조사되었다.

[그림]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비율



■ 51.2%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응답 기업의 51.2%가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조사되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주된 이유로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33.3%, '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 24.2%, '기타' 3.0%로 나타났다.

■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8월초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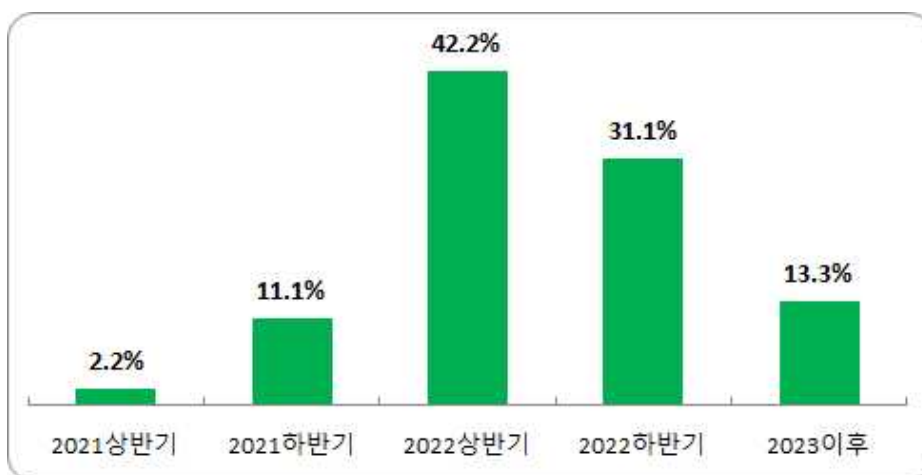
기업들은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8월초에 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8월 초순이 61.9%로 가장 많았고, 7월 하순이 21.4%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부여 방식은 '단기간(약 1주일)에 집중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 52.5%,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골고루 휴가를 부여' 42.5%, '2주일 정도에 걸쳐 교대로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5.0%로 조사되었다.

■ 60.5% 기업,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인식,
경기 회복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상 (42.2%)

60.5%의 기업이 올해 경기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최근 경기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매우 악화되었다' 9.3%, '악화되었다' 51.2% 등 부정적인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슷함' 32.6%,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2022년 상반기'(42.2%), '2022년 하반기'(31.1%)가 가장 많았다.

[그림]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시기



※ 첨부 : 『2021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6쪽) 1부. 끝.

『2021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1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 평균 3.5일

■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부산지역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부산지역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5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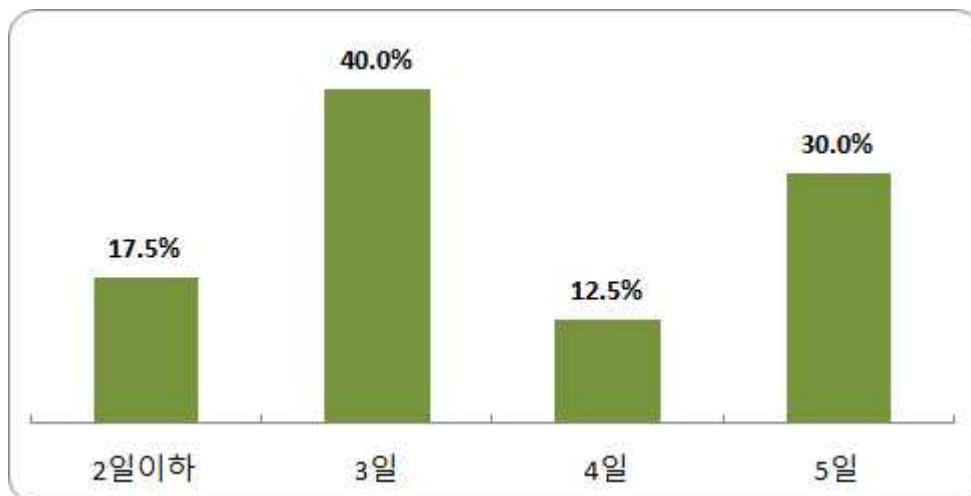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7일, 중소기업이 3.4일로 조사됨. 산업별로는 제조업 3.6일, 비제조업 3.3일로 조사됨.

< 표 1 > 하계휴가 일수 (단위 : 일)

구분	전체	규모별		산업별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2021년	3.5	3.7	3.4	3.6	3.3
2020년	3.8	4.6	3.5	4.5	3.3

○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3일’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0.0%로 가장 많았고, ‘5일’ 30.0%, ‘2일 이하’ 17.5%, ‘4일’ 12.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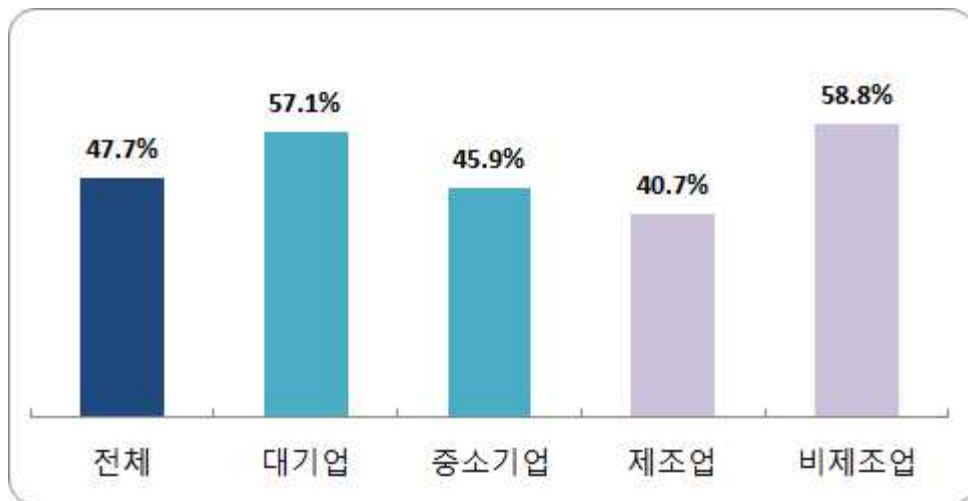
[그림 1] 하계휴가 일수 분포



2 부산지역 47.7%의 기업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47.7%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7.1%, 중소기업 45.9%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응답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40.7%, 비제조업 58.8%로 조사됨.

[그림 2]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비율



- 하계휴가비 지급 형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이 52.4%,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 지급' 기업이 38.1%, 기타 4.8%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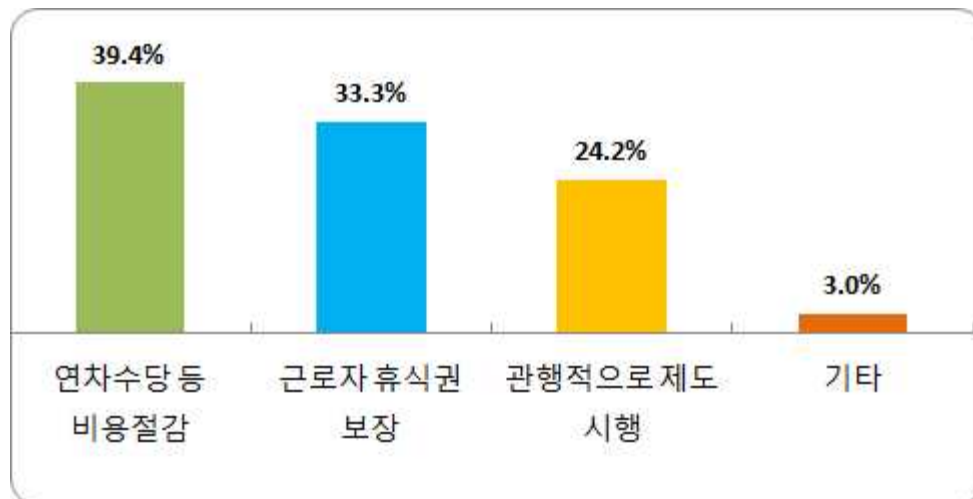
3 51.2% 기업이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응답 기업의 51.2%가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조사됨.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는 주된 이유로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33.3%, ‘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 24.2%, ‘기타’ 3.0%로 나타남.

[그림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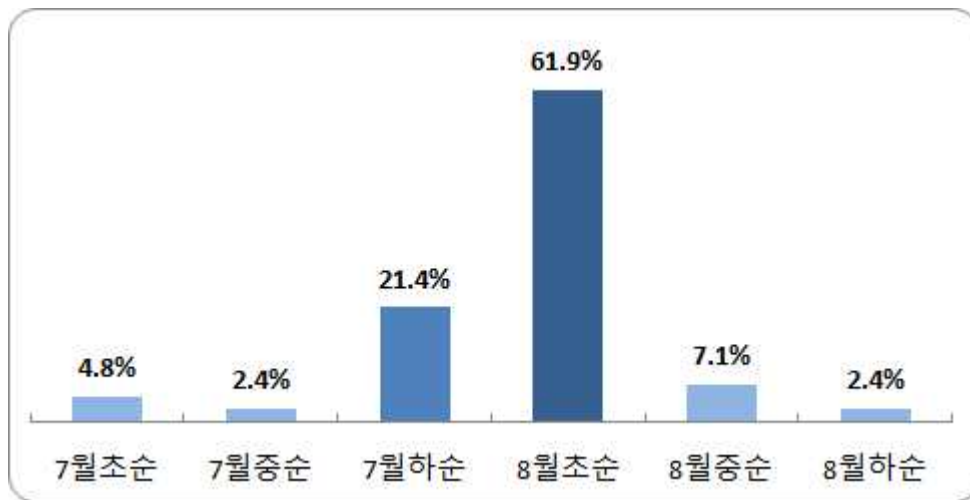


4 부산지역 하계휴가 집중 시기는 8월초 (61.9%)

부산지역 기업들은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8월초에 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됨.

8월 초순이 61.9%로 가장 많았고, 7월 하순이 21.4%로 나타남.

[그림 4] 하계휴가 실시 시기



하계휴가 부여 방식은 ‘단기간(약 1주일)에 집중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52.5%,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골고루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42.5%, ‘2주일 정도에 걸쳐 교대로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5.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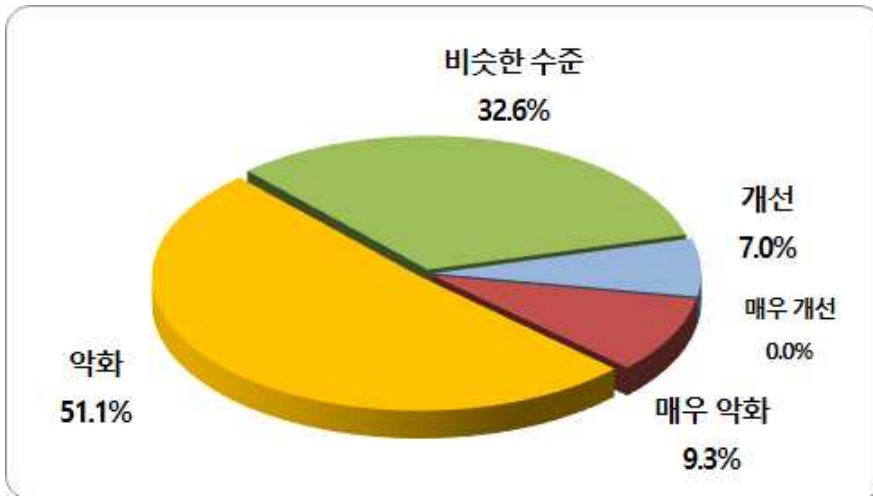
5

60.5% 기업,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인식, 경기 회복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상 (42.2%)

60.5%의 기업이 올해 경기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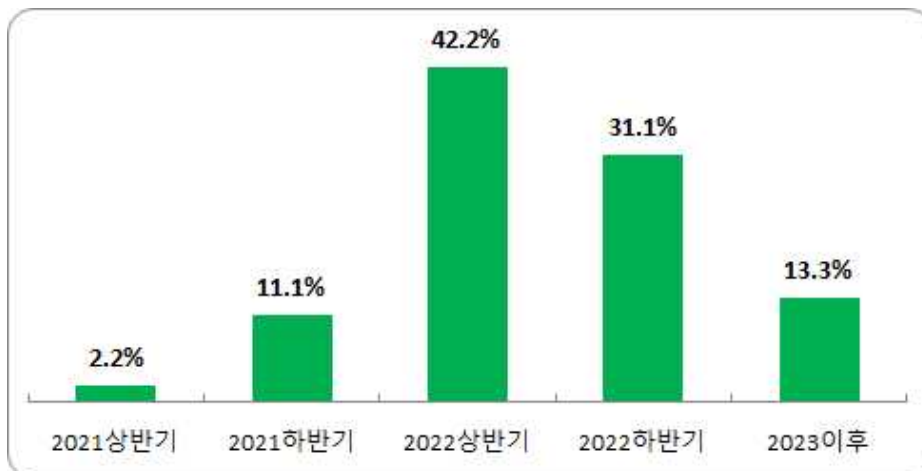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최근 경기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매우 악화되었다’ 9.3%, ‘악화되었다’ 51.2% 등 부정적인 응답이 60.5%로 나타남. ‘전년과 비슷함’ 32.6%,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남.

[그림 5] 최근 경기에 대한 평가



- 국내 경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2022년 상반기’(42.2%), ‘2022년 하반기’(31.1%)가 가장 많았음.

[그림 6]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시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부산지역 기업의 하계휴가 기간, 휴가비 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범위 및 대상

부산지역 주요기업 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 조사기간

조사기간 : 2021년 6월 28일 ~ 7월 2일

5. 조사방법

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6. 조사내용

- (1) 하계휴가 일수 및 실시 기간
- (2)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 및 경기회복 예상 시점
- (3)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 (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7. 설문회수현황

(단위 : 개)

전 체		131
규모별	대기업	21
	중소기업	110
산업별	제조업	84
	비제조업	47